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단 2 보좌

이남선

우 리 모두 1844년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의 순교와 관련해서 기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라고 잠시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그의 교회에 관해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는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아침에 미술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술 서랍들에게 요셉 스미스에 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서랍들은 요셉에 관해 모른다는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표정으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둘씩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행정가요, 5,000 명의 나무 군단을 거느린 군대의 사령관이요, 나부시와 파웨스트시의 건설자요, 미국 대통령 후보자요, 건축가요, 도시 행정가요, 시장이요, 물문경을 번역한 번역가요, 여섯 권의 방대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전세의 상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 산지와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 교회 행정, 식량 계획의 필요성, 부활 후의 세 가지 영광 등의 교리를 전한 위대한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요, 예언자이며, 그의 특유한 친절, 유머, 신앙, 용기, 외모, 고상한 기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숭앙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끝으로 이 위대한 사람이 포악한 폭도들의 손에 순교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여러분께서는 과연 요셉 스미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쓰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가 되어 있습니까.

요셉 스미스의 탄생과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예언으로 알려 있던 요셉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진실로 요셉이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명하셨나니, 내가... 훌륭한 선견자를 세우리니... 그 선견자를 주께서 축복하실 것이며...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지며, 저는 나와 같으리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루게 하실 일은 주의 권세로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니파이이서 3 : 7, 14-15)

나는 복음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의 문을 이신 분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4월 22~23일 양일간 서울 스테이크는 1978년 2/4분기 스테이크 대회를 제 1 와드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감리자인 고마쯔 장로와 작년 10월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요시히코 기꾸쨌 장로가 참석하였다.

321명의 부모와 청소년이 참석한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제3 와드의 김중일 감독과 장석숙 자매, 최영규 형제가 모두 "청소년 활동 촉진에 관한 나의 책임과 책임 이행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호남 스테이크 부장은 "충효사상"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기꾸쨌 장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킴벌 대관장님의 "일지를 써서 기록으로 남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였다.

일요일 일반 총회는 이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특별한 모임이었다. 고마쯔 장로가 진행한 스테이크 행사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서울 스테이크를 이끌어 오던 훌륭한 지도자인 이호남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이 부름을 받고 모든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에 최옥환 형제, 제1 보좌에 최동현 형제, 제2 보좌에 남영진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이호남 부장은 그를 지지해 주시던 그 노력과 사랑으로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단을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새로 지지 받은 스테이크 부장단의 말씀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테이크에 봉사하는 마



상 좌: 말씀하시는 고마쯔 장로와 동역하시는 이호남 부장
상 우: 말씀하시는 기꾸쨌 장로. 하 좌: 말씀하시는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 하 우: 신원 역원을 지지하는 성도들.

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겠다"고 말씀했다. 최옥환 스테이크 부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많다고 하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복된 복음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말일의 밝은 빛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뽀 뚝리고 마는 훌륭한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고 솔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어서 기꾸쨌 장로와 고마쯔 장로는 계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한국 민족은 조상에 관한 기록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 온 훌륭한 민족"이라고 하였고 우리는 모두 조상에 관한 기록을 신전의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한국 땅에 신전이 세워질 때까지 동경의 신전에서 신전 의식을 행할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셨다.

이번 대회에서 장로 19명, 칠십인 2명, 대제사 1명이 탄생했다.

이번 대회는 1270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부산 지방 대회

지난 2월 12일 지방부 대회에서 이병하 형제가 해임되고 도길희 형제가 지방부장직에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두 보좌는 민혜기 형제(제1보좌) 김치원형제(제2보좌)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또한 지난 4월 11일과 12일 양일 간에 부산지부에서 한인상 부산 선교부장의 감리로 제41차 지방대회를 가졌다.

새로 개편된 지방부장단이 처음 준비한 이번 지방 대회는 11일 토요일에는 "청소년 활동 촉진"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현 지방부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분석 평가와 방향제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빈틈없이 진행했다.

12일에는 아침 일찍 초등학교 창립 백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모임을 가서 어린이와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은 평소 애단련한 경건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

동래지부 대회

지난 3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동래지부는 지부대회를 가졌다.

18일에 열린 아론신권 대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준비한 훌륭한 연극을 통해 그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했으며 또한 회원 소개, 다과회도 가져 그들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했다.

19일 본 대회는 도길희 지방부장 감리로 가졌으며 도길희 지방부장은 계명가운데 생활하여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은 158명의 회원 및 구도자가 참석했다.

동래지부는 196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 하고있다. 현재 이종업 형제가 이 지부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위: 부산 지방 부장단, 선영 라모부터 민혜기 제1보좌, 도길희 지방부장, 김치원 제2보좌, 우임: 라모부터 김병서기 한석준, 서기 박혁규 형제남들, 아래: 지방 대회에 참석한 회원.

행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곧 이어 가진 일반 총회에서는 대회 시작 30분 전에 벌써 대회장이 꽉 메워졌으며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는 복도 등에서 말씀을 경청하였다.

이날 도길희(지방부장) 형제의 말씀에 이어 한인상 선교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날 대회는 614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여수지부 회원 전투경찰 위문

여수지부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식수를 바치고 50여명의 성도가 조국을 위해 수고하는 전투경찰대를 방문하여 위문하고 교회를 소개했다.

교회에서 마련한 목련과 동백나무를 전투경찰관들과 함께 기념 식수도 하고 노래, 게임, 장끼자랑, 무용놀이, 선교사 무언극, 보물찾기 등에 이어 교회 소책자와 가정의 밤 교재, 물문경, 회복된 진리라는 책을 전달했으며 행복의 추구와 물문 교회에 대한 필름스트립을 보여주며 함께 다과를 나누었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